

새 시대 문학예술혁명의 기관차가 되어 위대한 김정원시대를 선도해나가는 모란봉악단의 끼칠 줄 모르고 진할 줄 모르는 생기와 약동은 오늘 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의 가슴마다에 무한대한 힘과 열정을 북돋아주고 있다.

태어난지 불과 2년밖에 안되는 모란봉악단의 이 눈부신 성과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재적인 음악실력과 현명한 령도가 겹겹을 깎아내었다.

하기에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이번에 진행된 제9차 전국예술인대

진정한 예술은 어디에

사람들의 인가와 절찬을 받는 모란봉악단의 명성높은 실력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그에 대해 모란봉악단 단장 현송철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자신들도 놀랄만큼 짧은 기간에 온 나라 청년들과 인민들의 관심과 인기를 모으고 력사가 오랜 예술단체들에 못지않는 명성을 얻은 모란봉악단의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따뜻한 손길을 떠나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악단이 처음 조직되었을 때 창작가, 예술인들의 포부는 대단하였다고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모란봉》이라는 악단의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칠 만만한 야심을 가지고 배우들은 세계적인 악단들이 내놓은 명곡작품들도 형상해보고 창작가들은 경음악에 대한 세계적인 발전추세도 연구하면서 기세충천하여 달라붙었다.

바로 이러한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기 땅, 자기 터전을 떠나서 그 어떤 세계적인것을 기대하는 그들에게 모란봉악단이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는 길도, 세계적인 악단이 되는 비결도 바로 우리 인민이 좋아하고 즐겨부르는 음악을 창조하는데 있다. 다른 나라의 유명한 악단의 음악을 채보하여 형상하는것도 좋지만 민족음악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들이 사랑하는 노래를 가지고 그에 못지않게 만드는것이 더 중요하다, 선물을 위주로 하는

평양의 보통강기슭을 따라 현 대적이고 웅장한 평양체육관, 인민문화궁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그리고 빙상관, 청류관, 장광원과 같은 건축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주재자들을 형성하며 천리마거리, 락원거리 등이 길게 뻗어있다. 유원지, 공원들이 자리잡고있고 운하를 따라서는 보트존, 수영장과 겨울한철 리용하는 스케이트장도 마련됐다.

5월의 록음방송 우거진 강변은 공원화, 원림화되어 그 풍치는 참으로 이룰데 없다. 보통강변을 보면 평양을 가리켜 《공원속의 도시》라고 하는는 까닭을 가히 알수 있는것이다.

강변을 거슬러오르면 문화산기슭의 등덕에 있는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이 류달리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수많은 각계층 사람들이 오르고내리는 기념탑을 찾으면 보통강변의 력사와 전변을 두고 전세대들은 감회가 깊어지고 후세들은 다시금 새로이 알게 된다.

보통강을 길들여 국토의 일면을 변모시키고 민족번영의 귀중한 재부를 창조한 보통강변의 새 력사를 기념탑은 길이 전하고있는것이다.

그전날 보통강은 문화산등쪽기슭을 구불구불 감돌아 보통벌을 적시며 대동강으로 흘렀다. 치산치수를 하지 않은탓에 년년이 보통강물이 범람해 이 일대의 인민들은 큰물피해를 당해온 했다. 《제난의 강》, 《원한의 강》, 《눈물의 강》이라는것이 보통강

절세위인의 음악세계에 매혹되어 (1)

회의 높은 연단에서 자기들이 체험한 위인의 음악세계에 대해 끝없는 환희와 격정에 넘쳐 궁지높이 토로했던것이다.

필자는 그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천재적에지와 뛰어난 천품을 보여주는 진귀하고 보석같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더 생동하고 자세히 알려주고싶어 이 글을 쓴다.

진정한 예술은 어디에

우리 음악의 우수성과 매력을 살려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한다.

인민들이 누구나 다 좋아하면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것이고 진정한 예술이라는 인민존중, 인민제일주의의 철리가 맥맥히 흐르는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은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그 때부터 인민이 좋다고 하는것들을 더 좋게,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애썼고 인민이 조금이라도 싫어하는것과는 주저없이 결별하였다. 공연을 할 때마다 관중의 눈빛과 거동, 박수소리에까지도 온 마음을 기울였고 일터에

서, 거리와 마을에서 울려나오는 군중의 목소리를 하나도 흘려들지 않고 어떻게 하나 인민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하여 모색하고 아글라글 노력하였다.

하나하나의 곡목선정으로부터 편곡과 배우들의 연기형상, 분장과 인사법, 무대조명과 장치, 음향조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를 받으면서 모란봉악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은 그이의 천재적인 음악실력과 함께 인민앞에 끝없이 성실하시고 인민앞에 무한히 책임적이신 원수님의 인민제일, 인민사랑의 음악관을 새롭게 배울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란봉악단을 지도하실 때마다 새것, 새것 또 새것 하시는데도, 세계적으로 발전되었다고 하는 음악예술의 형식과 창조수법들을 다 받아들여 우리의것으로 만듦을 도록 선을 그어주시는것도 인민들앞에는 같은 작품을 두번 다시 내놓을수 없다는 끝없이 성실한 북무자세,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향유하게 하시려는 뜨거운 인민사랑으로부터 출발하신것이였다.

진정 모란봉악단의 발전을 위해 새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무수한 자육자육은 진정한 인민의 예술, 참다운 인민의 음악을 창조하기 위해 그이께서 바치신 끝없는 사랑과 헌신의 나날이었으며 또 하나의 숭고한 인민행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처럼 끝없는 애민헌신의 날과 달이 있어 오늘 모란봉악단은 인민들의 사랑과 호평을 받고있으며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새것을 창조하라!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모란봉악단의 예술창조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시종일관 강조하신 문제가 있다.

작품창작에서 고리타분한것을 없애고 부단히 새것을 창조하라! 그러나 새것을 창조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였다.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자그마한 성과에 자만하면서 낡은 경험보따리만 뒤지다나니 새것을 보는 눈은 어느덧 멀어버렸고 열려진 길로도 제발로 갈수 없었다는것이 모란봉악단 창작가들의 솔직한 고백이다.

멋쟁이악단, 일류음악단으로 자기의 이름을 떨치고있는것이다. 하기에 현송철단장은 대회장의 높은 연단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어떻게 하나 우리 인민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하여 모색하고 아글라글 애써온 그 모든 낮과 밤들이 있어 태어난지 2년밖에 안되는 우리 악단이 세계적으로 제노라하는 예술단체들과도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악단으로 솟구치게 되었습니다.》

새것을 창조하라!

바로 그러한 때 그들의 눈을 떠워주시며 예술창조의 새 지식을 가르쳐주시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악단의 운명과 전도는 전적으로 창작가들에게 달려있다고 하시며 작품창작에서부터 혁명을 일으킬것을 구상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 첫걸음으로 편곡에서부터 일대 혁신을 가져오도록 하시였다.

사실 그때 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악단이 새로 조직되었으니 웅당 새 노래부터 창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편곡에는 관

심을 돌리지 못하고있었다. 악단의 창작가들속에서 나타나는 편향을 대변에 간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활력, 생명력이 있는 노래들은 물론 회미해지거나 물허버린 음악들을 찾아내어 새맛이 나게 편곡할데 대해 이

르시였다. 누구도 눈길을 돌리지 않던 기성작품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음악창조의 무한한 소재로 보시고 편곡이라는 창작의 활무대를 펼쳐주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창작가들과 예술인들은 민족의 음악재보를 귀중히 여기시는 뜨거운 사랑과 함께 새것을 대하시는 그이의 진취적이고도 혁신적인 창조자세를 가슴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그이의 창조의 세계는 그야말로 변화무쌍하고 파격적이였으며 새것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들어설수 없는 위대한 세계였다.

—우리 식의 새로운 리듬을 계속 창조해야 한다.

—화성조직도 도식적인 틀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특색있게 해야 한다.

—노래편곡에서 기본선율과 밀착된 제2의 선율을 완전히 새로

게 뽑아내야 한다. 때로는 몸소 피아노를 치시며 편곡의 새로운 방법론을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또 연제인가는 우리 함께 노래선율을 완성해보자고 하시며 새 노래의 선율을 하나하나 완성시켜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가 있어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지난 시기 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었던 대담한 창조방식으로 노래 《애국가》, 《슬리자들》과 같은 노래들을 독특한 편곡양상을 가진 작품들로 손색없이 완성할수 있었고 《내 조국강산에 넘치는 노래》, 《그대는 어머니》, 《그이 없인 못살아》, 《희망년친 나의 조국아》와 같은 약동하는 시대의 감정정서를 반영한 훌륭한 새 노래들을 련이어 창작할수 있었다. 이 나날에 10대의 나 어린 신인배우가 인민의 사랑받는 명가수로, 평범한 창작가가 영웅작가가 되었다.

모란봉악단 부단장 황진영은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가르치심, 몸소 창작하신 선율들을 다 합치면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는 새 세기 조선식음악총론, 김정원음악총론이 될것입니다.》

본사기자 김강철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언제나 사람들의 절찬을 받으며 진행되고있다.



5월의 보통강반에서

날에도 언제한번 보통강변 인민들의 눈물겨운 운명과 생활을 잊은 적 없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인촌 보통강개수공사를 구상하셨다.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건국사업으로 다망하신 속에서도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신 수령님께서는 여러차례 현지를 찾으시어 설계도면도 보시고 공사를 하루빨리 다그치기 위한 방도도 가르쳐주셨다.

주제35(1946)년 5월 21일 보통강개수공사 착공식이 있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친히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격려사를 하셨다. 그이께서는 격려사에서 보통강개수공사는 평양시민들이 애국적인 로동으로 민주주의 새 조국건설에 기여하는 첫사업이며 해방된 우리 인민이 처음으로 하는 대자

의 대명사였다. 1942년 한해에만도 큰물로 해서 5만여명의 주민들이 인적, 물적피해를 입었다. 2 000여정보의 농경지가 류실되고 1 000여호의 농가가 침수되는 참사가 빚어졌다. 도성량과 서령알밀대, 대라령지구의 물관리는 레상사였다. 가족이나 보통별사람들이 사는 곳을 가리켜 거지촌, 빈민굴이라고 불렀는데 수해까지 겹치면 말그대로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되곤 했다.

어린시절 보통벌을 오가며 인민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을 목격하시며 그들의 가궁한 정상을 사무치게 마음속에 새겼고 항일의 나

연개조사업이라고 하시고 보통강개수공사를 하여 평양을 큰물피해로부터 지켜내며 앞으로 보통강일대를 풍치좋고 아름다운 유원지로 만들도록 할데 대해 강조하셨다.

개수공사의 과제는 도시안으로

호르는 물길의 흐름방향을 바꾸어 봉화산하리를 가로질러 흐르게 하는것으로서 통수로로 내어 새 물길을 형성하고 여러개의 제방을 쌓으며 강바닥을 파는것이였다.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자체의 힘으로 보통강개수공사와 같은 공사를 하나하나 완공

의 하루가 창래의 백날맞잡이라고 하시고 장마철전으로 공사를 끝내도록 할데 대해 강조하셨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평양시민들은 일제가 300만명의 인력을 동원해 10년이나 끝내지 하지 못한 그 공사를 단 55일동안에 계속했다. 지금과 같은 봉화산기슭으로부터 팔골다리를 지나 곧 새 대동강과 잇닿은 강물길이 생겨나게 되었고 평양은 영영 큰물피해를 모르는 도시로, 사람들은 보통강의 덕을 보는 향유자로 되게 됐다.

근 70년전 수령님께서 쓰신 애국의 첫 삽에서 국토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졌고 보통강변의 전변의 기적이 창조됐다.

5월의 보통강반은 불수록

풍치수려한 경관이다. 운하를 따라 배놀이와 한창이고 신서교로부터 팔골다리에 이르는 유보도에는 낚시질풍경이 이채롭다. 공원과 유원지들은 퇴근길에 산책을 즐기는 근로자들로 붐비고 유희오락과 체육운동으로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로 흥성인다.

보통강반의 풍치에서 사람들은 건국의 초창기에서부터 국토관리와 전변의 오늘과 래일을 구상하고 후대들에게 세세대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조국산천을 물려주도록 하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애국의 일념과 비범한 령도, 크나큰 업적에 대해 가슴뜨겁게 절감하는것이다.

제갈남



인민의 훌륭한 문화휴식터로 전변된 보통강반

시대를 주름잡는 《조선속도》

약동하는 젊음으로 날에날마다 눈부신 비약과 기적이 창조되는 공화국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태어났다. 바로 조선속도라는 말이다.

지난 4월 경에 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조업을 앞둔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돌아보시며 이곳 수산사업소건설을 발기한 때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방대한 공사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조업을 눈앞에 둔것은 놀라운 기적이며 이것이야말로 조선속도라고 하시였다.

전국의 육아원, 육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양하는 이 수산사업소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기와 전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항만시설들을 그 흔회 갖춘 현대적인 수산기지로서 훌륭히 개건되었다.

날마다를 헤가르며 뻗어간 수백m의 방파제를 건너시면서 원수님께서는 마치 비행장 활주로에 온것만 같다고, 이곳 수산사업소는 불수록 회한 로동당시대의 걸작, 조선동해포구에 솟아난 선군시대의 새로운 풍경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의 명령을 받들고 산악같이 펼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의 불꽃의 투쟁정신에 의하여 우리 당에서 인민들과 한 약속을 지킬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선창 마다에 물고기차 차인것을 물고기사태가 쏟아지면 이곳을 선군14경이라고 부르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조선속도가 안아올 새로운 선경! 그것은 령도자의 구상과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 하루를 백날전날맞잡이로 주름잡으며 이 땅위에 사회주의 부귀영화가 활짝 꽃피는 강성국가를 일떠세워가는 공화국의 모습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남들이 열걸음 백걸음에 이룩했을 단 한걸음을 내걸어 이룩하는 공화국의 단숨에의 정신, 조선속도는 비단 이곳에서만 창조된것이 아니다.

최근에 개건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때에도 원수님께서는 세상을 놀라우게 조선속도를 창조하고 후대들에게 물려줄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를 마련한 군인건설자들에게 감사의 주시였다.

본사기자

나들이길에 만난 고마운 분

답하던 할머니는 그만 얼떠름해졌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데 이렇게도 친절하실가?

로인은 주책할사이도 없이 차에 올랐다. 자기의 지행이와 보짐을 받아 뒤창결에 놓으시고 문도 닫으시는 그분로 오래살고 머시 눈여겨보았다. 인자한 인물에서 로인은 알게모르게 맑이 뵈온듯 한데 딱히 짙이는데는 없었다.

편히 앉으라고, 멀미는 하지 않는가, 자체분은 몇이나 되는가 일일이 물으시고는 교생이 많았겠다고, 이제 오래오래 살면서 더 좋은 세상을 보시라고 하시는 그분의 인정많은 모습에서 로인의 생각은 한폭으로만 흘렀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지?... 어느덧 차는 사망물로 가는 길

림길에서 멎었다.

《이렇게 고마운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저 지나서 되겠습니까?》

로인은 주미주밋하며 이렇게 말씀올렸다.

그분은 대답대신 빙그레 웃으시며 차에서 내리는 그를 거들어 주고 보짐과 지행이를 들려주시고 나서 《할머니, 오래오래 사십시오, 조심하여 다녀가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넸시였다.

차는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로인은 너무도 황송해 그냥 한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얼마후 다른 승용차 한대가 할머니결에 나타나고 차에 탄 한 사람이 그에게 귀뻐해서야 앞차에 타신분이 위대한 김일성주석시절을, 공원, 유원지들이 빠른 속도로 일떠서고 있었다.

본사기자

보통의 상식이나 계산방법으로는 가늠할수도 없고 예측할수도 없는것은 시간마다 분마다 줄라온 전변과 변혁을 이룩하는 조선속도이다.

온 나라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보폭에 맞춰 활화산처럼 끓고있다.

《마식령속도》 창조의 불길속에서 천원수림지대인 마식령에 세계적인 스키장이 건설된데 이어 세계일류급의 아이들의 궁전과 현대적인 수산기지 가 련이어 일떠서고 수수천년 잠자던 세로동만에 대규모의 현대적인 축산기지가 건설되고있으며 인민들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할 생산공장들과 문화후생시설들, 공원, 유원지들이 빠른 속도로 일떠서고 있다.

온 나라가 행복의 웃음소리, 약동의 노래소리로 차있으며 질풍같은 속도로 최후승리를 향하여 내달리고있다. 령도자의 두리에 온 나라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나아가는 조선속도의 시간에 맞추어 인민이 복락을 누리는 강성국가의 희망찬 앞날은 눈앞에 다가오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